

마을공동체 구심체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김재철 박사(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ntents

1. 왜 마을공동체가 중요하고 작은도서관이 주목받고 있는가?
2.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구심체로서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
3. 작은도서관은 확충되어 왔지만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마을공동체 구심체가 되기 위한 작은도서관 발전과제

요약 A Summary

1. 마을공동체가 중요하고 작은도서관이 주목받고 있다.

-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생활, 생활환경 등에 대한 이슈나 정책에 관심이 높아짐
- 주민생활영역의 개선과 발전은 행정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의한 마을공동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녀교육, 문화활동, 독서활동, 주민과의 교류활동, 마을가꾸기, 마을기업 등의 공동체사업이 갈수록 증대될 것인바, 이를 위한 구심체적 주민자치활동의 센터가 필요하게 되고, 작은도서관이 이를 결합할 수 있는 마을의 거점으로 주목하게 됨

2.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구심체로서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

- 21세기 창조 시대를 맞아 지식을 창조하는 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이 새롭게 증대되고 있음
 - 광주는 무등의 평등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마을 구석구석에서도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을마다 도서관의 운영이 필요함
 - 마을 도서관은 생활 속에서 자녀와 함께 쉽게 도서관에 접근하여 책을 읽고, 행정정보와 생활정보를 얻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이웃과 대화하고 마을의 발전을 논하는 기능과 역할을 작은도서관이 맡도록 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커뮤니티의 도서관이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3. 작은도서관은 확충되어 왔지만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광주광역시는 걸어서 5분이내에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1,000세대당 작은도서관 1개관을 목표로 작은도서관을 확충, 지원한 결과 현재 299개관으로 급증하여 3년 전 보다 6배 이상 증가(공립 49개관, 사립 250개관)
- 이처럼 작은도서관이 많이 확충되었지만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마을공동체의 복합적인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서를 비롯한 운영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셋째,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프로그램과 시설부족 및 인식도를 제고하여 생활문화공간으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과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프로그램개발과 도서관 꾸미기가 필요함
- 넷째,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등도서관 등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창조마을조성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사업에 마을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마을공동체 구심체가 되기 위한 작은도서관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작은도서관 확충

- 마을단위로 작은도서관 설치구역 세분화 : 걸어서 5분이내 접근(아파트단지, 마을회관 등)
- 기존 공공시설의 도서관을 개방하여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활용
- 초·중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마을공동체의 구심체로 활성화

- 다중 이용시설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작은도서관 신규 설치
- 음악, 미술, 인권 등 테마형 전문 작은도서관 개발

2) 복합적인 문화복지 기능 활성화로 마을구심체의 역할 강화

-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검색, 대출, 반납 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이용편의성 제고
- 학교와 연계하여 독서, 진로, 체험, 숙제 등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마을의 생활정보나 행정정보를 확보하여 주민에게 제공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 마을주민의 문화증진 및 교류와 평생학습 공간으로 운영
- 일시적 아동 맡김 서비스 등도 수행하여 마을복지기능 강화
- 주민 주도로 북카페 스타일의 주민이 가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꾸미기운동 전개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및 기획 역량 제고

- 마을주민이 참여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 도서관 확충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일자리 창출
- 관리자의 문화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및 기획 교육 프로그램 운영(대표도서관)
- 마을주민들이 사서 등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운영
- 도서관사랑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시민들의 북스타트 운동 등 재능기부 전개
- 회원회비, 기부금, 북카페 운영 등 자체 수입을 통한 도서관 재원확보의 다양화
- 작은도서관 컨설팅 지원센터 설치 및 문화마당 개최를 통한 성공사례 확산
- 매년 마을공동체 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작은도서관 백서를 발간

1. 왜 마을공동체가 중요하고 작은도서관이 주목받고 있는가?

-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생활, 생활환경 등에 대한 이슈나 정책에 관심이 높아짐
 - 근대화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군부정치 과정에서 개인의 삶보다는 개발정책 중심의 국가성장이나 정치적 민주주의 등이 시민의 정치경제적 과제였음
 - 그러나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국가경제 성장과 발전이 양극화와 같은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초래하면서 내가 사는 생활영역의 발전에 관심이 높아짐
- 주민생활영역의 개선과 발전은 행정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의한 마을공동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모든 집행이 투명화되고, 예산집행의 한계 등을 알게 되면서 행정에 의존만으로는 삶의 질 제고 및 생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됨
 - 아파트라는 공동주택단지는 도시 주거생활의 주류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자치기능이 활성화 된 아파트단지를 비롯하여 기존 단독주택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
-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녀교육, 문화활동, 독서활동, 주민과의 교류활동, 마을가꾸기, 마을기업 등의 공동체사업이 갈수록 증대될 것인바, 이를 위한 구심체적 주민 자치활동의 센터가 필요하게 되고, 작은도서관이 이를 결합할 수 있는 마을의 거점으로 주목하게 됨
 - 마을단위에서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콘텐츠는 독서모임 등 주로 자녀교육 및 학습과 관련된 활동이므로 자연스럽게 작은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부상하게 됨
 - 과거 농촌에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는 농수산업이라는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적 기반에서 공동체가 활성화 됨

2.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구심체로서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

- 21세기 지식·정보·문화의 시대에 도서관은 지식을 창조하는 문화시설로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도서관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첫째, 생활밀착형 생활정치나 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둘째, 주민 자치와 참여에 의해 마을공동체가 발전한다는 인식 제고, 셋째, 창조마을 조성과 같은 마을가꾸기나 복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공동체사업의 증가, 넷째, 아파트단지나 전통적인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도서관을 주민들의 교류와 결속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함
- 따라서 이미 확충되었거나 확충될 작은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공공기관 도서관 등을 시민과 밀착된 마을공동체의 복합문화시설로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도서관을 운영하고,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동체의 구심체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음
- 또한 도시의 마을공동체에서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간의 교류와 결속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하여 도서관이 진로, 체험, 독서지도, 숙제 등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녀들을 돌보는 학습공간이 되고, 또한 북카페 스타일로 만들어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양한 정보획득과 문화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작은도서관은 책을 활용하여 아동과 어린이를 돌보고, 마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공간이 될 수 있음. 맞벌이 부모들이 잠시 동안 어린이를 맡길 수 있고, 도서관 운영에 전문사서는 물론 파트타임 인력이 필요한데 마을 자체 내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음

- 이처럼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체 도서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광주시의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역량도 요구됨. 따라서 창조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서관이 구심체 역할을 하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유리함
- 도서관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기업과 봉사단체, 개인 등의 후원 및 재능봉사와 연계시켜 도서관 운영이 시민참여와 자원봉사자의 역할로 민간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활성화하기에 유리함
- 광주의 정체성 측면에서도 광주는 무등의 평등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이자,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광주만의 정체성을 지닌 발전모델을 창조하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와 작은도서관은 광주의 정체성에 부합한 발전모델임
-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복합적인 문화복지 공간의 구심체로서 작은도서관의 미래모습은 첫째,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시민이 자녀와 함께 쉽게 도서관에 접근하여 책을 읽고, 둘째, 행정 및 생활 정보를 얻고, 셋째, 문화 및 복지활동을 하고, 넷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이웃과 만나서 대화하고, 다섯째, 마을의 발전을 논하는 마을공동체의 행복한 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3. 작은도서관은 확충되어 왔지만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1) 작은도서관 현황

- 2013. 3월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총 299개 관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지난 3년동안 작은도서관육성조례 제정과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이 실시되면서 양적으로 6배 이상 증가됨

〈표 2〉 운영 주체별 광주시 작은도서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확충목표 (천세대당 1개관)	기조성			13년 목표	향후 확충계획		
		소계	공립	사립		소계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	500	299	49	250	50	151	20	131

- 공립 작은도서관은 국사·구비로 조성된 도서관으로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서 현재 49개관이 운영 중이며, 사립작은도서관은 아파트, 교회, 단체, 지역아동센터,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서 현재 250개관이 운영 중임
-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10평) ~263㎡(79평), 열람석 6석~59석, 자료 및 장서 1,000권 이상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별로 살펴보면 15평에서 20평 규모의 작은도서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간이 그리 크지 않아 마을공동체의 복합적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이 최근 3년 동안 양적으로 급증했지만 과거 문고나 공부방 수준이 많으며, 아직은 인식도가 낮아 지역주민의 이용은 낮은 실정임
- 소수 작은도서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지만 많은 도서관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서 자격자의 상근 근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초기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운영자의 지원항목 50%이상이 도서구입비와 독서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매월 신간도서 등을 구비해야 이용주민이 늘어나므로 도서 구입비 조달이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광주시는 2012년부터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해서 동별 1개소의 거점 도서관을 육성하는 목표하에 97개 도서관을 선정하여 도서자료구입, 시설비, 프로그램 운

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초기단계에서 지원이 획기적인 변화는 줄 수 없지만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 거점문화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작은도서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작은도서관 운영상 보완할 사항

-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여 마을공동체의 복합적인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도서관은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서를 비롯한 운영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도서관 운영에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서를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여 충분치 않으며, 특히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전문 운영인력부족이 도서관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도서관의 전문성 부족과 서비스수준 저하는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 도서관이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프로그램과 시설부족 및 인식도가 낮아 생활 문화공간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낮으며 도서관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지원과 마을주민들의 참여하에 도서관 꾸미기가 필요함
- 도서관의 생명은 다양한 도서 및 정보자료의 축적, 기공, 보존에 있는데 예산의 어려움으로 자료 확보가 어렵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도서관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이용자의 요구

-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학부모들은 도서관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장소에 많이 확보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집 근처에 도서관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음
- 도서관에 많은 도서들이 비치되어 시민이 일할 때 원하는 책이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서관을 바라고 있음
- 도서관 이용과정에서도 모든 도서관 회원이 통합되어 상호대차나 반납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24시간 운영이 되기를 바람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요구

-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리자나 사서들은 가장 중요하게 전문인력 즉 사서를 많이 배치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주장하고 있을 정도임
 -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이 시민에게 보다 필요한 서비스와 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과 마인드를 갖춘 사서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많은 도서를 확보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은 각 도서관마다 지역의 특성과 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분야의 자료가 집중되고 특화된 기능을 갖고 시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공공도서관이 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기능을 차별화해서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화해야 하고, 이는 시립, 구립, 교육청 도서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
-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원이 있기 전에는 지역운동 차원에서 마인드가 있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만들어 문화공간으로 학습공간으로 잘 운영하였는데, 지원 이후에는 무분별하게 도서관이 등록되어 오히려 도서관의 신뢰와 질적 저하를 우려하기도 함
- 이는 지원에 따라 과도한 경쟁과 지원금의 활용 항목에만 치중한 나머지 획일화되고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컨설팅,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함

3)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 마을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확충과 육성
- 마을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 활성화
- 마을주민이 참여하여 시민밀착형의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4. 마을공동체 구심체가 되기 위한 작은도서관 발전과제

(1)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작은도서관 확충

1) 마을단위로 설치구역 세분화 : 걸어서 5분 이내 접근

- 광주시는 인권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인권헌장에는 모든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 차별 받지 않고 도서관 이용과 접근이 편리하도록 접근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마을마다 설치 : 인구 1000세대당 1개관
 - 아파트단지 작은도서관 설치 및 활성화, 마을회관 도서관 설치 등
- 작은도서관을 모든 근린생활권마다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은 광주시의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립 작은도서관 가운데 잠재성이 있는 도서관을 본래 기능과 마을공동체의 복합문화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모방법을 택하고, 공모를 위해서는 공동체 이용 중심의 공공성 기준으로 도서관의 목표와 선정기준을 제시해야 함
 - 작은도서관의 목표 : 근린생활권의 주민친화적 복합문화거점을 지향
 - 선정 기준 : 공공성을 강조
- 선정 방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안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과정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 가능한 도서관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 방법 : 지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산을 요구
 - 도서관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 차이
 - 공립 도서관 : 시설, 인력, 프로그램, 장비 등 모두 지원 가능
 - 주민단체(아파트), 시민단체 도서관 : 시설, 인력, 프로그램, 장비 등 지원 가능
 - 개인, 종교, 사단법인 : 인력, 장비, 프로그램 지원 가능
 - 이중수혜 금지
- 지원 대상 도서관의 선정 및 사후 평가를 위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할 필요 있음
 - 선정시 이러한 기준에 대한 현황 및 실태와 지원 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비교하여 평가함

- 작은도서관 면적 규모	복합문화거점으로 가능성 여부를 판단
- 운영자(관장)의 전문적 역량과 마인드	운영자의 도서관 전문성과 문화기획 역량
- 도서관의 전문적 특성	다양한 전문 작은도서관 육성 촉진
- 접근성과 개방성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장애요인의 유무
- 지역 주민이용 실적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파악
- 시민참여 운영 역량	도서관 회원수, 운영위원회 시민참여수,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후원사례실적 등
- 도서 장서규모 및 시스템	도서 및 정보자료의 DB와 이용체계 구비
- 시설과 환경	건물디자인, 공간디자인, 부대시설(카페), 조경과 꾸밈 등의 미적감각과 쾌적성 여부
- 타 도서관과의 거리	한 지역에 집중을 방지하고, 골고루 분산입지 촉진

- 평가 및 확산
 - 지원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하고, 최초 선정기준의 항목별로 최초 선정당시와 지원후 평가를 통해 비교분석
 - 평가 이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성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
 -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및 확산 홍보
 - 작은도서관 박람회 개최
 - 운영위원회 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이용 실태조사 실시(2년마다)
- 작은도서관 지원대상을 3분류로 구분하여 예산을 배분
 - 공립 작은도서관 육성 : 매년 10개 도서관 선정
 -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아파트단지 포함) :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다중이용시설 내에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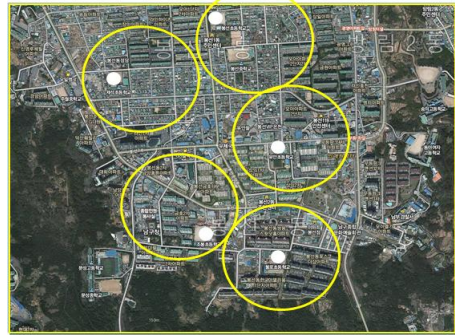
2) 기존 공공시설의 도서관을 개방하여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활용

- 시청, 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시산하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시설의 기존 도서관을 개방하거나 새로 설치하여 해당 마을공동체 주민에게 개방
- 마을주민에게 복합문화거점으로 개방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공공기관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함
- 공공기관이 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가능한 한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1층이나 별도 부속건물에 설치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은 북카페 스타일로 조성하여 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전시공간 등 문화 활동이 가능토록 조성함

3) 초·중 학교도서관을 마을공동체 도서관으로 개방

- 기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도서관과 학교 신설시 공공도서관을 학교내에 설치하여 학교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는 대체로 근린 생활공동체 범위에 있는 교육시설로서 도서관의 이용 생활권과 비슷한 지리적 범역을 지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경우 일정규모의 주택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배치되어 있음

- 근린생활권 즉 마을단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규모의 수준으로 일치
- 지도에서 아래에서부터 불로초, 조봉초, 유안초, 제석초, 봉선중 학교 위치와 마을공동체 생활권



-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학습분위기 훼손, 야간관리 어려움, 야간개방에 따른 안전, 인력부족, 내부공간 설치 부적합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인력지원,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물 모서리에 도서관설치 시설비지원 등 일부 지자체 지원이 이루어지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 학교 신개축시 학교도서관 개방을 전제로 건축 지침 마련
- 선정 절차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자체 지원 내용을 사전에 제시하고 공모를 통해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사전에 교육청과 시청이 협약을 체결함
 - 신설 학교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하여 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도서관 개방효과로는 지역사회공동체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도서관을 이용하여 면학분위기와 학업성취도 및 독서량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 수 있음

4) 다중 이용시설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작은도서관 신규 설치

- 도서관은 시민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될 경우 시민의 이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러한 장소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곳이며, 기다림이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쉼터로서 책을 읽고 정보를 접속하는 문화공간이 필요한 장소임
- 다중이용시설 내부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책을 보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에 접속하고 해당 시설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센터 기능을 함
 - 공항, 역, 터미널, 지하철역, 광장 등 교통 다중이용시설
 - 시청, 구청, 공원, 문화예술회관, 아시아문화전당, 전시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 병원, 백화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
 - 충장로, 예술의 거리, 구시청사거리 등 도보 통행인구가 많은 거리
- 이런 장소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인포메이션센터와 북 카페가 융합된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서관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함

(2) 복합적인 문화·복지 기능 활성화로 마을구심체의 역할 강화

- 1) 공공도서관과 검색, 대출, 반납 등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이용편의성 제고
 -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검색, 대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개별 도서관의 소장도서 목록을 취합하여 통합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엔진 색인 작업 후 각 도서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통합목록방식의 검색시스템은 공공도서관별로 분산되어 보유하고 있는 도서의 소장정보(도서이미지, 배가위치, 대출가능 여부 등)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고, 책 커버 이미지와 같은 비주얼 콘텐츠를 제공하고 검색서비스 환경의 정확성과 속도를 개선해 줌
 - 통합목록 검색시스템 구축은 1단계로 2015까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단계(장기)는 작은도서관도 포함하여 실시
 - 통합목록 DB구축을 통해 도서대출이력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에 회원이 각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읽었던 도서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직접 자신의 대출(연체) 현황을 모든 공공도서관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도서관의 공동회원제(회원인증제, 회원카드양식 통합 실시)를 실시하고, 공공도서관 순회차량 및 대출/반납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함

- 2) 학교와 연계하여 독서, 진로, 체험, 숙제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커뮤니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그 이용자가 지역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의 유치원 및 초·중 학교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독서지도 동아리 뿐만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 동아리를 만들어 도서관에서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도 절감하고 방과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학생들을 돌보는 기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학교수업을 위한 독서 탐구활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방과후 학생들이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도서관에서 탐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이 뿌리내릴 수 있음
- 3) 마을의 생활 및 행정 정보센터로서 기능과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기능 강화
- 도서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가공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데, 작은도서관은 모든 생활정보를 수집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기반사회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함
 -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시민에게 알리는 행정정보나 민원서류 양식을 보관하고, 부동산, 맛집, 공연일정, 문화행사, 일자리정보, 주민정보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정보격차를 통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제도 및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과 모든 정보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교육 및 무료 활용 코너를 설치함
 - 기존 정보화마을 시범사업 같은 중앙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 4) 마을주민의 문화증진 및 교류, 평생학습 공간으로 운영
- 공동체 내에서 작은도서관은 책을 읽는 도서관 기능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하고, 가족과 함께 공부하고, 영화보고, 문화동아리가 전시회나 공연도하고, 회의도 하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주로 어린이를 위한 독서공간으로 기능하는데서 벗어나 좀더 공간을 확대하여 차 마시는 북 카페스타일의 공간과 회의 및 전시공간을 갖

추어야 함

- 특히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커피전문점과 결합된 북카페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하고 카페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도서관 운영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마을전시 및 홍보관으로 활용

5) 일시적 아동 말끔 서비스 등도 수행하여 마을복지기능 강화

- 현재 우리 지역에는 영유아 및 취약계층의 아동을 돌보는 시설로서 보육시설과 아동센터가 있는 이들 시설은 유치원에 입학하기 이전 단계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과 취약계층의 초중고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보육센터에서는 취학이전 단계에서 그림책을 통해 글자를 깨우치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아동센터는 문고를 설치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공부방기능을 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 지원조레이후 아동센터는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동센터가 학생들의 공부방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기존 보육시설이나 아동센터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커뮤니티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시설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복지 및 문화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함
- 커뮤니티의 작은도서관이 커뮤니티 내의 어린이를 일시 맡아서 돌보고, 특히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부모들이 더욱 선호할 수 있으며, 돌봄과 도서관을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효율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6) 북카페 스타일 등 주민이 가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꾸미기

- 최근 마을가꾸기 운동이 주민운동의 모델로 작용하여 많은 마을에서 정책적 지원

- 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작은도서관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핵심사업이 되고 있음
- 또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웃 또는 학부모들 간의 교류의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마을마다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는 것도 그러한 단면을 보여 준다고 생각됨
 -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여기고 있는데 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이 자주 찾고, 문화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내부와 외부의 건축적 디자인이 사람들을 편안한 심터를 제공하고 랜드마크 크로 의미가 있어야 함
 - 작은도서관으로서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도서관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외관이 독특한 디자인과 내부가 북 카페처럼 꾸며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단순한 도서를 비치해 놓고 책을 읽는 수준의 공부방은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 면이 있음



- 작은도서관을 건립코자 할 때는 기존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가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시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외관의 디자인을 중요한 활성화 요소로 삼아야 할 것임
- 특히 내부공간은 서가와 책걸상의 디자인을 비롯해 배치구조, 천장과 벽 그리고 바닥의 소재와 디자인, 컬러 등 이용자에게 편안한 분위기와 책을 읽게 만드는 내부 인테리어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및 기획역량 제고 방안

1) 마을주인이 참여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여 공동체의 문화공간의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에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자치회(아파트자치회 등)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 운영위원회에서 자치단체(공공도서관 포함),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도서관을 가꾸고 프로그램개발 등 운영과 관련한 자문과 컨설팅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문화공간으로서 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인 주민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

2) 도서관 확충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일자리창출

- 현재 도서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서를 포함한 전문인력의 확충문제임. 이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 지역에서 이미 양성된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에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도서관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활용
 - 가급적 상근 사서전문인력으로 관장 배치(상근 자원봉사자도 가능)

- 상근 자원봉사자의 경우, 복수로 지명하여 시간제로 상근
- 자원봉사자 회원 모집 운영(도서관지킴이 자원봉사 활성화 등)
-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인증제 도입(인정기관 승인)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능봉사단체 및 봉사자와 연계 운영
- 대학과 연계하여 인턴 및 재능봉사 활동 활성화
- 작은도서관 증가에 따라 사서인력과 파트타임 인력이 필요함으로써 우선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일자리창출에 기여 제공
 - 작은도서관을 마을의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카페 등을 설치하여 운영
 - 마을 주민이 작은도서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대표도서관이 시민사서양성 프로그램 운영하여 교육
- 지자체가 지원한다면 사서와 같은 전문인력을 지원해주어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동시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 올 필요가 있음

3) 관리자(관장)의 문화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서관 운영 및 기획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운영을 잘 하는 사례는 대부분 운영자의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문화적 마인드에서 비롯되고 그로 인한 기획역량이 발휘되어 나타난 결과임
-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첫째, 사서의 전문성이 있어야 함.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자료수집과 정리, 가공, 제공(대출)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게 자료를 분류하여 정리하는 전문성이 필요함.
- 둘째, 문화적 마인드와 문화기획 능력이 있어야 함. 도서관이 공동체의 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유발하고 문화향유에 관심을 갖도록 도서관의 기

능과 프로그램개발, 문화카페의 연출 등을 통해서 활성화 됨

- 셋째, 작은도서관을 공동체의 문화공간으로 가꾸고자 하는 도서관가꾸기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이 있어야 함. 이러한 열정이 도서관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하며 편안한 공간과 장소로 꾸미게 되며, 책꽂이, 장식품, 화분, 꽃밭 등 사소한 것들도 주민들을 위해 가꾸며 찾고 싶도록 만들게 됨
-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문화적 마인드와 기획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범 도서관을 견학하고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시민 친화형 작은도서관 만들기 포럼을 만들어 상호 교류를 통해 학습토록함
 - 작은도서관 만들기 포럼과 운영자의 교육은 광주시립도서관(대표 도서관)이 주관이 되어 사무국 기능을 하고, 포럼은 작은도서관 관장, 사서, 지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작은도서관 운영자(관장)과 직원에 대한 교육은 대표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또는 해당 구역별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함

4) 주민들이 사서 등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운영

-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재원의 한계로 상근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내고, 재능봉사자들이 도서관 운영에 봉사활동을 하고, 주변에서 많은 후원자가 도움을 주는 시민참여형 도서관 운영이 되어야 함
- 도서관이 시민참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이나 자원봉사활동단체 및 재능나눔단체와 연계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원은 시설측면에서 인테리어나 디자인, 프로그램 면에서 독서 지도, 문화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도서분류, 대출, 정보가공 및 처리 등의 분야에서 자원이 필요함

-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관련 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도움을 받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도서기증 알리미 창구 설치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후원회 구성,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5) 도서관사랑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시민들의 북스타트 운동 전개

- 지역주민과 일반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 관장을 포함한 민간단체 중심으로 도서관사랑시민운동본부를 시 주관으로 결성하여 북스타트운동을 추진하고, 시민독서운동, 1시민 1책 기부운동, 1책 1도서관운동, 1기업 1작은도서관 가꾸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일반시민, 법률, 복지, 사회, 기술,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인력들이 자발적 동참과 재능기부 운동전개 및 재능기부단체와 연계
- 기업이나 개인과 연계되어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후원활동 전개
 -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및 기여 활동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설립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추진

- 삼성그룹 : 리모델링, 시설지원, 도서기증
 - 희망의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부터 57개교, 민영 도서관 86개관 후원
- LG그룹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 2007년부터 초중학교 8개교에 희망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 SK 텔레콤 : 작은도서관 조성, 도서 기증
 - 행복한 도서관을 설립하여 아파트 도서관 설립, 도서 기증 등
- 이 외에도 NHN, 롯데, 뉴킨스 코리아, STX 등 일부 기업들이 지원

6) 회비, 후원금, 자체수익사업 등 도서관 재원확보의 다양화

- 도서관 운영의재원을 확보방안은 지자체의 도서관에 대한 예산확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에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함
 - 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금 : 공모사업에 참여
 - 지역 주민을 포함한 회원을 통한 회비(회원에게는 특혜나 인센티브 부여)
 - 주민 및 외부단체로 부터 후원금 및 기부금(세금감면 기관으로 지정)
 - 기타 자체 수익사업(커피점 운영, 전시대관료 등)

7) 작은도서관 컨설팅지원센터 설치 및 문화마당 개최를 통한 성공사례 확산

- 현재 300개가 되는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므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신규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컨설팅이나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센터 설치가 필요함
- 센터에는 사서, 문화기획자, 프로그램기획자 등 소수의 상근자와 작은도서관 관련 재능기부 전문 자원봉사자를 비상근위원으로 두고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광주시가 지원하여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센터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센터의 소재는 대표도서관에 설치하거나 또는 도서관 관련 전문 민간운동단체를 지정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광주광역시와 대표도서관 주최, 주관으로 매년 작은도서관 성공사례의 확산과 교류, 시민참여, 후원활성화를 위해 각 도서관의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하는 도서관 문화마당 개최
- 시민과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가장 모범사례가 되는 10대 도서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이들 도서관에는 인센티브적인 지원을 실시함

8) 매년 마을공동체 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백서를 발간

- 작은도서관의 육성정책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조사항목	내용
1	작은도서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공도서관 분관 - 공, 사립 - 운영주체 및 유형
2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대표자, 운영자, 자원봉사자 등)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운영위원회 여부 및 지역주민 참가자수
3	소장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현황(총장서수, 총 도서자료수, 연속 간행물자료 수) - 증가 현황
4	시설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 열람석 -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수(관리자용, 이용자용) -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무
5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수(직원, 자원봉사자) - 사서자격증 유/무(직원, 자원봉사자) - 운영 관련 교육(직원, 자원봉사자, 시간)
6	예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원(행정기관 지원, 회비 및 이용료, 후원금, 기부금, 기타) - 예산지출 내역(도서구입비, 인건비, 총지출내역 등)
7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개관일수, 개관기간(평일, 주말)) - 도서대출(외부대출, 대출도서관리 방법, 상호 협력망 구축 여부, 연간 대출건수) - 이용관련 내용(이용자수, 회원 등록자수)
8	공공도서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대차서비스 - 순회사서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지원(인력, 예산, 장서, 프로그램, 기타) - 문화프로그램 실시(프로그램수, 실시횟수, 참가자수 등)

※ 본 내용은 필자의 개인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 김 재 철 박사(선임연구위원) jaykim@gji.re.kr